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영성에 관한 연구*

이 명 화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상호영향을 주고 받는 독특한 존재이다. 따라서 한 영역의 변화는 다른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인간의 영적인 차원은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았을 때 보상작용의 기전으로 일어나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Fish & Shelly, 1978).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은 인간의 모든 면에서 본 생활에의 적합성, 즉 질병의 부재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안녕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Ha, 1986).

이러한 건강의 개념 확대로 인해 전인간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간호란 모든 인간에게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고 특히 약한 자와 병든 자들에게는 보다 온전한 생명, 온전한 삶이 유지되도록 돕기 위하여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다(Kim & Kim, 1985). “전인”이란 원래 성서적 인간 개념을 기본으로 하며 “신성하고 온유한 치유”라는 의미를 지닌다. ‘신성한(Holistic)’이란 말은 ‘Holy’ 즉 ‘신에게 바쳐진’이란 단어에서 유래되어 기독교적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온전한(Wholistic)’이란 용어는 ‘온전한 사람’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손상없이 건강한 상태의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는 ‘whole’의 의미를 담고 있다(Chung, 1995). 이러한 관점에서 건강은 영성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Newman(1989)은 간호가 영적간호를 포함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으며 그것은 간호나 종교나 의술이나 모두 삶의 완전성(wholeness of life)을 지향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영적 차원은 당연히 간호학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영(spirit) 혹은 영성(spirituality)은 인간의 모든 측면을 통합시키며 신체적, 정신적 차원을 초월하여 역경에 반응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힘(Frankl, 1963) 또는 내적 자원의 총체(Hiatt, 1986; Stoll, 1989)로서 인간 본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Hunglemann, Kenkel-Rossi, Klassen과 Stollenwerk(1985)은 인간은 정신과 신체를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 자연과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자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영적 존재라고 하였다. NANDA의 간호진단에서도 ‘영적 문제, 영적 관심, 영적 좌절, 영적 고통’을 영적인 간호문제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간호계에서는 영적 간호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영적 개념의 추상성과 심리적 영역과의 구분의 어려움, 종교적 개념과의 혼용, 과학적 회의론 및 간호사의 영적 신념의 부족과 영적 간호중재 능력의 부족(Grandstrom, 1985) 등으로 실제 간호이론이나 연구 및 실무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Elkins, James, Hughes, Andrew & Cheryl, 1988). 또한 실제 간호현실에서는 신체적 간호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심리, 정신, 영적인 간호는 소홀히 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요어 : 간호대학생, 영성

* 본 연구는 2002학년도 고신 대학교 전인 간호과학 연구소 주최 학술 대회 연구 지원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1)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교신저자 E-mail: myunghwa@kosin.ac.kr)

투고일: 2004년 8월 9일 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16일

영적 간호는 성직자들의 영역이거나 암 또는 죽음을 당한 환자들 자신의 종교적 과제라고 접어두는 경향임을 부인할 수 없다(Lee, 1988). 그러므로 영적 간호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영적 간호 요구를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사들이 영적 요구를 사정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하며 간호사 자신의 영성이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Fish와 Judith(1978)는 인간의 영성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개인의 신앙 유무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가 되는 것으로서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타인 그리고 신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관심을 주고받으며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자 하는 영적 기본요구가 있다. 이런 영적인 기본요구가 충족되었을 때는 개인의 안녕감과 온전함을 취할 수 있는데 어느 한 가지라도 상실하거나 부족할 때는 영적 지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질병이나 생의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대상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요구가 높은 상황이므로 앞으로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미래의 간호학생들에게는 영적요구와 간호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그들의 영성이 준비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영적 안녕이나 영적 간호와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 간호사 및 간호학생의 영적 간호 인지조사(Kwon, 1989; Jin, 1991; Chung, 1994)와 일반 성인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영적 안녕에 대한 연구(Choi, 1990; Oh, 1996)와 영성 개념 분석(Kim & Lee, 1998)과 영적 간호 교육(Kim, 1995), 영성 체험(Oh & Kang, 2001), 영성 개념 분석(Oh, 2001), 영성 측정 도구 개발(Oh, 2001)에 관한 연구 등으로 주로 영성에 대한 개념과 영적 간호에 대한 연구들이었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성을 측정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간호사가 올바른 영적 간호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생들에게 영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자신의 영적 간호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영적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간호학생들의 영성과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영성 개발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학생들에게서 영성을 파악하여 간호학생들의 영성 개발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종교적 특성과 지각된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영성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종교적 특성에 따른 영성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영성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용어 정의

- 영성
 - 이론적 정의 : 종교적인 신념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인간의 내적 자원의 총체로서 자신, 타인 및 상위 존재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하여 삶의 역동적, 창조적 에너지로 작용하고 현실을 초월하여 경험하게 하며 그 결과 존재의 의미와 목적 및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는 영적인 태도 및 행위를 의미한다(Howden, 1992).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Howden(1992)의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 자원, 통합적 관계성 및 초월성으로 구성된 영성 측정도구를 Oh, Jeon과 So(2001)가 한국어판으로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지각된 건강상태
 - 이론적 정의 :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말한다(Ware, 1976)
 - 조작적 정의 : Ware(1976)가 개발한 지각된 건강상태 측정도구를 Park(1995)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내에 있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타 지역 대상자들과 지역적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영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서 선정된 대상자는 B광역시에 소재한 5개 대학교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499명을 임의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 현재 B광역시내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연구 도구

• 영성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Howden(1992)이 개발하고 Oh 등(2001)이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8항, 6점 Likert 척도를 26문항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4개의 하부 차원, 즉 삶의 의미와 목적 4문항, 내적 자원 8문항, 상호 관계성 8문항, 초월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Alpha는 .916 이었으며, 하부 차원의 신뢰도 값은 .7091~.911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8721 이었으며, 하부 차원의 신뢰도값은 .6013~.7385이었다.

• 지각된 건강상태 측정도구

Ware(1976)가 개발한 건강 인식 도구를 Park(1995)이 변안한 도구로 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점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건강하다’ 5점, ‘건강한 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2점, ‘매우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점을 주어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총점은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02년 6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B 광역시 소재 5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550명에게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거한 550부 중 불충분한 자료 51부를 제외한 499부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종교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영성 정도는 평균 및 평균표준점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종교적 특성에 따른 영성은 t-test

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차이 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영성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종교적 특성과 지각된 건강상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에서 여자가 98.8%로 대부분이었으며, 연령은 23세 이상이 29.9%로 가장 높았고 21세가 28.7%으로 그 다음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49.3%로 가장 많았으며, 천주교가 9.8%로 가장 적은 수를 차지했다. 학년은 2학년이 37.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학년이 24.6%로 많았다. 실습경험은 있는 학생 41.7%, 실습경험이 없는 학생 58.3%로 실습경험이 없는 학생이 더 많았다.

거주형태로는 자택이 71.3%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하숙이 2.4%로 가장 적게 차지했다.

흡연유무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이 97.2%를 차지한 것에 비해 흡연을 하는 사람이 2.8%를 차지했다.

음주유무에서는 음주를 하는 사람이 전체의 56.7%를 차지했고,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는 43.3%가 나왔다.

가족 수는 3-4명이 47.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는 5명 이상이 40.1%를 차지했다.

생활수준은 상, 중, 하로 나누었을 때 ‘중’이 84.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는 ‘하’가 10.4%, ‘상’이 5.2%의 순으로 나왔다.

주택소유는 ‘자가’가 81.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세’가 14.4%, ‘기타’가 4.4%의 순으로 나왔다.

진학 동기는 ‘취직하기가 쉬워서’가 52.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의 권유’가 20.0%, ‘자아능력 개발’이 19.8%로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집안의 분위기는 ‘화목’이 55.9%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저 그렇다’가 23.6%로 그 다음이었다.

부모와의 세대차를 느끼는 정도는 ‘보통이다’가 68.9%로 가장 높았고, ‘많다’가 18.8%, ‘없다’가 7.8%, ‘아주 많다’가 4.4%의 순으로 나왔다.

신상문제를 상담하는 대상은 ‘친구’가 5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부모님’이 21.8%로 그 다음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종교적 특성에서는 신앙에 영향 받는 정도가 중 정도인 군이 44.1%으로 가장 높았고 ‘신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한 군이 73.9%으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나 ‘신에 대해 의미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99)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N(%)
Age (years old)	below 20	107(21.4)
	21	143(28.7)
	22	100(20.0)
	above 23	149(29.9)
Sex	male	6(1.2)
	female	493(98.8)
Religion	christian	246(49.3)
	catholic	49(9.8)
	buddism	72(14.4)
	others	132(26.5)
Grade	freshmen	99(19.8)
	sophomore	185(37.1)
	junior	92(18.4)
	senior	123(24.6)
Practice Experience	Yes	208(41.7)
	No	291(58.3)
Type of residence	own house	356(71.3)
	boarding	12(2.4)
	board oneself	98(19.6)
	dormitory	24(4.8)
	others	9(1.8)
Smoking	yes	14(2.8)
	no	485(97.2)
Alcohol	yes	283(56.7)
	no	216(43.3)
No of family	1-2	25(0.5)
	3-4	274(54.9)
	above 5	200(40.1)
Economic state	high	26(5.2)
	middle	421(84.4)
	low	52(10.4)
Possession of house	own house	405(81.2)
	engagement	72(14.4)
	others	22(4.4)
Religion of parents	christian	170(34.1)
	buddism	169(33.9)
	chatholic	44(8.8)
	others	116(23.2)
Motive of going on to university	get a job	260(52.1)
	ask from parents	100(20.0)
	passions of learning	40(8.0)
	development of self ability	99(19.8)
Climate of family	very intimacy	95(19.0)
	intimacy	279(55.9)
	ordinary	118(23.6)
	unfortune	7(1.4)
Gap of generation	very much	22(4.4)
	much	94(18.8)
	ordinary	344(68.9)
	none	39(7.8)
Counselor of personal affairs	parents	109(21.8)
	teachers	35(7.0)
	friends	260(52.1)
	others	95(19.0)

가 없다'고 한 군도 25.9%이었다.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2.9%가 '꼭 필요하다'고 했으며 40.9%는 '가끔 필요하다'고 하였고 16.0%에서는 '모르겠다'고 하였다.

종교에 도움을 받는 정도는 '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군이 30.5%로 가장 높았고 '항상 그렇다'는 군도 28.7%나 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군도 5.2%나 되었다.

일상에서 신의 주관 정도에서는 '약간 그렇다'고 한 군이 27.3%로 가장 높았고 '항상 그렇다'는 24.0%로 그 다음이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군도 8.4%였다.

종교서적 탐독정도는 '거의 보지 않는다'는 군이 33.9%로 가장 높았고 '가끔씩 본다'는 군이 32.5%로 그 다음 순이었고 '날마다 본다'는 군이 4.8%로 가장 낮았다

종교의식 참여정도는 '때때로 참석한다'는 군이 31.3%로 가장 높았고 '거의 하지 않는다' 28.3%, '대부분 참석한다' 23.4%, '항상 참석한다' 17.0%의 순이었다<Table 2>.

<Table 2> Region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99)

Religional Characteristics	Division	N(%)
Effect of religion	high	122(24.4)
	middle	220(44.1)
	low	157(31.5)
Meaning of God	yes	369(73.9)
	no	129(25.9)
Nessecity of religion	firmly	214(42.9)
	occasionally	204(40.9)
	don't know	80(16.0)
Help from religion	always right	143(28.7)
	almost right	115(23.0)
	somewhat right	152(30.5)
	almost not right	63(12.6)
	not right	26(5.2)
Subjectivity of God in life	wholly not right	
	always right	120(24.0)
	almost right	107(21.4)
	somewhat right	136(27.3)
	almost not right	94(18.8)
Reading religious book	not right	42(8.4)
	wholly not right	
	everyday	24(4.8)
	occasionally	162(32.5)
	almost not	169(33.9)
Participation in religion ceremonies	nothing	144(28.9)
	Always	85(17.0)
	almost	117(23.4)
	occasionally	156(31.3)
	almost not	141(28.3)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평균 3.42±0.80점으로 높았으며, '건강한 편이다'는 군이 47.3%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고 한 군도 32.9%였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한 군도 9.4%나 되었다<Table 3>.

<Table 3> Perceived health status of subjects (N=499)

	Division	N(%)	Mean±SD
Health status	very heathy	51(10.2)	3.42±0.80
	healthy	236(47.3)	
	moderate	164(32.9)	
	not healthy	47(9.4)	
	not very healthy	1(.2)	

대상자의 영성정도

대상자의 영성은 101.14±8.70점(범위 26~130). 평균평점 3.89 ±.33(범위 1~5)으로 높았고 영역별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3.92±.46점으로 가장 높았고 내적자원이 3.90±.40점(5점 만점)으로 그 다음이었고 관계성(3.88±0.36점), 초월성(3.87±

0.43점)의 순이었다<Table 4>.

<Table 4> Spirituality of subjects (N=499)

Area	Mean	SD	Mean mark	SD
Relationship	31.07	2.87	3.88	.36
Transcendense	23.23	2.57	3.87	.43
Internal resourse	31.17	3.23	3.90	.40
Purpose and meaning of life	15.68	1.82	3.92	.46
total	101.14	8.70	3.89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종교적 특성에 따른 영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성에서는 성별, 종교, 음주, 집안분위기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영성이 높았고, 종교는 기독교 군이 기타 종교 군보다 영성이 높았다. 음주를 안 하는 군이 하는 군보다 영성이 높았다. 집안 분위기가 매우 화목한 군이 화목한 군과 보통인 군 보다 영성이 높았다<Table 5>.

종교적 특성에 따른 영성에서는 신앙에 영향을 받는 정도,

<Table 5> Spiritua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99)

Characteristics	Division	Mean	SD	t or F	p	Scheffe test
Age(years old)	below20	101.19	7.86	-2.125	.034*	
	21	100.94	9.34			
	22	101.13	8.48			
	above23	101.30	8.85			
Sex	male	93.67	8.69	407.03	.000	
	female	101.23	8.67			
Religion	christian(1)	102.23	9.09	2.663	.047*	1>4
	catholic(2)	100.29	8.16			
	buddism(3)	100.51	8.52			
	others(4)	99.78	8.05			
Grade	first	101.54	8.68	.714	.544	
	sophomore	101.43	9.59			
	junior	101.47	6.92			
	senior	101.15	8.53			
Practice Experience	Yes	101.21	8.23	.144	.886	
	No	101.09	9.03			
Type of residence	own house	100.95	8.51	.167	.955	
	boarding	101.75	8.16			
	board oneself	101.57	8.84			
	dormitory	101.96	10.79			
	others	101.00	10.74			
Smoking	yes	101.07	9.08	.030	.976	
	no	101.14	8.70			
Alcohol	yes	100.33	8.45	-2.401	.017	
	no	102.21	8.92			
No of family	1-2	102.79	9.37	0.456	.634	
	3-4	101.08	8.76			
	above5	101.02	8.55			

* p < .05

<Table 5> Spiritua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continued) (N=499)

Characteristics	Division	Mean	SD	t or F	p	Scheffe test
Economic state	high	102.27	9.91	1.659	.191	
	middle	100.84	8.43			
	low	103.02	10.02			
Possession of house	own house	101.29	8.61	1.316	.269	
	engagement	99.79	8.96			
	others	102.77	9.29			
Religion of parents	christian	101.98	9.00	.794	.497	
	buddism	100.70	9.07			
	chatholic	100.66	7.86			
	others	100.73	7.97			
Motive of going on to university	get a job	100.26	8.52	2.609	.051	
	ask from parents	101.15	8.80			
	passions of learning	102.30	8.01			
	development of self ability	102.73	9.09			
Climate of family	very intimacy(1)	103.94	10.11	4.888	.002*	1>2,3
	intimacy(2)	100.67	8.17			
	ordinary(3)	99.82	8.07			
	unfortune(4)	104.97	11.63			
Gap of generation	very much	101.32	10.47	1.210	.305	
	much	101.22	8.99			
	ordinary	100.83	8.46			
	none	103.62	8.95			
Counselor of personal affairs	parents	102.38	8.94	1.002	.392	
	teachers	101.40	9.69			
	friends	100.72	8.52			
	others	100.78	8.70			

* p < .05 ** p < .01

종교의 필요성에 대한 정도, 종교에 도움을 받는 정도, 삶에서 신이 주관하는 정도, 종교서적 탐독정도, 종교의식에 참여 정도에 따라 영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신앙에 매우 영향을 받는 군이 적게 영향을 받는 군보다 영성이 높았고 종교의 필요성이 확고한 군이 가끔 필요하다는 군

과 모른다고 한 군보다 높았고, 종교에 도움을 받는 정도가 항상 그렇다는 군이 거의 그렇다, 다소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군보다 높았고, 삶에서 신이 주관하는 정도가 항상 그렇다고 한 군이 거의 그렇다, 다소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고 한 군보다 높았다. 종교 서적 탐독 정도에서는 매일 읽는

<Table 6> Spirituality according to religion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99)

Characteristics	Division	Mean	SD	t or F	p	Scheffe test
Effect of religion	upper(1)	103.36	9.08	6.489	.002**	1>3
	middle(2)	100.00	8.55			
	low(3)	99.63	8.30			
Meaning of God	yes	101.51	9.08	1.650	.100	
	no	100.05	7.47			
Nessecity of religion	firmly(1)	102.59	9.33	5.313	.005**	1>2,3
	occasionally(2)	100.15	7.80			
	don't know(3)	99.81	8.55			
Help from religion	always right(1)	104.84	9.49	11.213	.000**	1>2,3,5
	almost right(2)	98.68	7.53			
	somewhat right(3)	100.04	7.83			
	almost not right(4)	101.38	8.35			
	wholly not right(5)	97.69	8.29			

** p < .01

<Table 6> Spirituality according to religion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continued)

(N=499)

Characteristics	Division	Mean	SD	t or F	p	Scheffe test
Subjectivity of God in life	always right(1)	104.55	10.10	7.412	.000**	1>2,3,4
	almost right(2)	99.13	7.37			
	somewhat right(3)	100.66	8.23			
	almost not right(4)	99.47	7.17			
	wholly not right	101.76	9.50			
Reading religious book	everyday(1)	106.9	11.41	.5007	.002**	1>3,4
	occasionally(2)	101.71	8.83			
	almost not(3)	99.83	7.54			
	nothing(4)	101.10	8.96			
Participation in religion ceremonies	Always(1)	104.48	9.51	5.768	.001**	1>3,4
	almost(2)	101.22	9.10			
	occasionally(3)	99.84	7.40			
	almost not(4)	100.49	8.74			

** p < .01

다고 한 군이 거의 읽지 않는 군과 전혀 읽지 않는다고 한 군보다 높았으며, 종교 의식에 참여는 항상 참석한다는 군이 가끔 참석한 군과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는 군보다 높았다 <Table 6>.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영성과의 관계

지각된 건강상태와 영성정도와의 상관관계는 r=.498로 중정도의 유의한 순상관 관계가 나타나 영성이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health status and spirituality

	Spirituality r(p)
Health status	.498(p=0.004)**

** p < .01

논 의

일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성과 관련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성별에서는 대부분이 여자였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많았다. 학년은 2학년이 가장 많았고 실습경험이 없는 군이 있는 군보다 많았고 거주형태는 자택이 대부분이었다. 흡연은 97.2%가 하지 않았고, 음주는 56.7%에서 하고 있었으며 가족 수는 54.9%가 3-4명이었다. 생활수준은 보통이 84.4%였고, 주택은 자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부모의 종교는 기독교가 1/3, 불교가 1/3이었다. 진학동기는 과반수가 '취직하기 쉬워서'로 나타났다. 집안분위기는 거의가 화목하며 세대차는 과반수에서 보통으로 느끼고 있었고 신앙

문제 상담자는 과반수가 친구였다. 이는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Jin(1991)의 대상자보다 연령이 높았고 종교도 Jin(1991)의 무교가 높았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신앙 문제 상담자가 친구가 가장 높았던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Kwon(1989)의 종교가 기독교가 가장 많았던 결과는 일치하였다. 이상에서 간호 학생들은 여자가 대부분이고 종교는 다양하며 흡연은 거의 하지 않으나 음주는 과반수 이상에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3.42점으로 높았으며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이형 C.M.I를 사용하여 건강상태를 측정한 Park(1998)의 연구에서 100점 만점에 81.47점보다는 낮았고 또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1986)보다는 낮았으나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은 스스로 비교적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영성은 상당히 높았으며(130점 만점에 101.14 ±8.70, 5점 만점에 3.89), 영역별로는 '삶의 의미와 목적' 영역이 가장 높았고 내적 자원, 관계성, 초월성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Oh 등(2001)의 만30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03.6점(5점 만점 3.66점)으로 나온 결과보다는 높았고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Kim(1998)의 6점 만점에 3.97점으로 나온 결과보다 높았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Choi(1990)의 연구에서 6점 만점에 4.06점으로 나온 결과보다 높아 간호학생들의 영성은 일반인보다 높다고 볼 수 있겠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영성은 영적 안녕과 높은 순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영성이 높은 것은 영적 안녕 상태가 높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영적간호증제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삶의 의미와 목적 영역이 가장 높아서 존재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주관하며 당면한 현실을 초월하

여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영성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초월성, 관계성, 내적 자원 같은 내용을 강조하여야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성에서는 성별, 종교, 음주, 집안분위기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영성이 높았고, 종교는 기독교가 가장 높았다. 음주를 안 하는 군이 하는 군보다 영성이 높았다. 집안 분위기가 화목한 군이 불우한 군보다 영성이 높았다. 이는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Kim(1998)의 연구에서 교육정도, 종교, 자녀수, 가족 총수입, 여가 시간활용에 따라 영성이 유의한 차이가 나온 결과와는 차이가 있어서 간호학생들의 영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 영성 개발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종교적 특성에 따른 영성에서는 신앙에 영향을 받는 정도, 종교의 필요성에 대한 정도, 종교에 도움을 받는 정도, 삶에서 신이 주관하는 정도, 종교서적 탐독정도, 종교의식에 참여정도에 따라 영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에서는 신앙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높을수록 종교에 도움을 받는 정도가 높을수록 삶에서 신이 주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종교적 서적 탐독 정도가 높을수록, 종교 의식에 참여가 높을수록 영성이 높았다. 이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Min(1996)의 연구에서 영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수술 유무, 종교생활 기간, 예배 및 집회 참석 정도, 기도 생활 정도, 종교가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Oh(1997)의 연구에서도 종교, 종교적 예배 참여 정도, 종교적 삶에 미치는 정도와 믿음 정도가 영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여 종교적 특성들이 영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종교 서클의 활성화를 통한 개개인의 자발적인 영성 개발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학생시절에 개발된 영성은 간호사가 되었을 때 효율적인 영적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사료된다.

지각된 건강상태가 영성과의 관계는 중정도의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성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Kim(1998)의 연구에서 영적 안녕과 갱년기 증상과의 역 상관관계가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영성개발은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건강상태의 향상은 영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영성을 향상시켜 질병 치료와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이 영적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간호 학생들의 영성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간호사가 영적 간호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영적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영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들의 영성과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영성 개발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술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2002년 6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B광역시내 4년제 대학교 5개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4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영성을 측정하기 위해 Howden(1992)이 개발하고 Oh 등(2001)이 번역한 영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PC 10.0을 사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t-test, ANOVA, Schffe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영성 정도는 101.14 ± 8.70 점(범위26-130점)이었다.
-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3.42 ± 0.81 점(범위1-5점)이었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성은 성별($t=-2.125$, $p=.034$), 종교($F=2.663$, $p=.047$), 음주($t=-2.401$, $p=.017$), 집안 분위기($F=4.888$, $p=.002$)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대상자의 종교적 특성에 따른 영성은 신앙에 영향을 받는 정도($F=6.489$, $p=.002$), 종교의 필요성에 대한 정도($F=5.313$, $p=.005$), 종교에 도움을 받는 정도($F=11.213$, $p=.000$), 삶에서 신이 주관하는 정도($F=7.412$, $p=.000$), 종교서적 탐독정도($F=5.768$, $p=.001$), 종교의식에 참여정도($F=5.007$, $p=.002$)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지각된 건강상태와 영성과의 관계는 중정도의 순상관관계로 나타났다($r=.498$, $p=.004$).

이상에서 간호대학생의 영성은 상당히 높았고 지각된 건강상태는 높았으며 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종교, 실습경험, 흡연, 음주, 집안 분위기와 신앙에 영향을 받는 정도, 종교의 필요성에 대한 정도, 종교에 도움을 받는 정도, 삶에서 신이 주관하는 정도, 종교서적 탐독정도, 종교의식에 참여정도로 나타났고 지각된 건강상태와 영성과는 중정도의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학생들에게 영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에 고려해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간호대학생의 영성개발을 위한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간호대학생의 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한 영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Chung, J. S. (1994).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importance of spiritual care in christian student nurse, *J MP Nursing College*, 9(1), 23-40.
- Chung, J. S. (1995). *Spiritual Nursing*. Seoul : Hyunmoonsa.
- Choi, S. S. (1990). *The study of spiritual well-being, hope, health status of adul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eonse University, Seoul.
- Choi, S. S., & Kim, J. S. (1998). Study on spiritual well-being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Educ*, 4(2), 331-342.
- Elkins, D. N., James, H. L., Hughes, L. L., Andrew, L. J., & Cherryl, S. (1988). Toward a humanistic phenomenology of spirituality. *J Humanistic Psychol*, 28(4), 5-18
- Fish, S., & Judith, A. S. (1978). *Spiritual Care: The Nurses Role*. Illinois: Inter Varsity Press.
- Frankl, V. (1963). *Man's search for meaning*. NewYork: Washington Square Press.
- Grandstrom, S. L. (1985). Spiritual nursing care for oncology patient. *Top Clin Nurs*, 7(1), 39-45.
- Ha, Y. S. (1986). *Introduction of nursing*. Seoul: Sinkwang Pub.
- Hiatt, T. F. (1986). Spirituality, medicine & healing. *South Med J*, 8(4), 49-66.
- Howden, J. W. (1992). *Development & psychometric characteristic of the spiritual assessmen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 Hunglemann, J., Kenkel-Rossi, E., Klassen, L., & Stollenwerk, R. (1985). Spiritual well-being in older adults: Harmonious Interconnectedness. *J Relig Health*, 24(3), 407-418.
- Jin, E. H. (1991). Investigation about the thinking of spiritual care and the character of nursing student. *J Jinju nursing junior college*, 14(1), 237-244.
- Kim, K. J., & Lee, B. S. (1998). Concept analysis of spirituality. *J Korean Acad Adult Nurs*, 10(3), 460-468.
- Kim, M. H. (1998).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opausal symptoms and spiritual well-being, *Korean J Women Health Nurs*, 4(1), 38-51.
- Kim, S. J., & Kim, M. I. (1985). Nursing of 2000, *Korean Nurs*, 21(5), 7-10.
- Kim, S. J. (1979). Real Nursing. *Korean Nurs*, 18(2), 33-38.
- Kim, S. O. (1986). *Comparative study of health perception, health behavior, health status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onse University, Seoul.
- Kwon, H. J. (1989). Perception of spiritual nursing care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19(3), 233-239.
- Lee, W. H. (1988). Spiritual nursing, *Korean Nurse*, 27(1), 21-27.
- Min, S. Y. (1996). A study on the state of spiritual health of cancer patients. *Nurs Sci*, 7, 127-142.
- Newman, M. F. (1989). The Spirit of Nursing. *Holist Nurs Pract*, 3(3), 27-32.
- Oh, B. J. (1996). Relationship of Spiritual well-being and Spiritual nursing intervention, *Korean Nurs Q*, 5(2), 103-119.
- Oh, B. J. (1997). Relationship of Spiritual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on cancer patients, *J Korean Acad Adult Nurs*, 9(2), 189-197.
- Oh, B. J., & Kang, K. A. (2000). Spiritual assessment scale: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Korean version Spirituality: concept analysis. *J Korean Acad Nurs*, 30(5), 1145-1155.
- Oh, B. J., & Kang, K. A. (2001). The experience of spirituality. *J Korean Acad Nurs*, 31(6), 967-977.
- Oh, B. J., Jeon, H. S., & So, W. S. (2001). Spiritual assessment scale: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Korean version, *J Korean Oncol Nurs*, 1(2), 168-179.
- Park, C. J. (1998). Relationship among hope and locus of control, health status. *J Korean Acad Nurs Educ*, 4(2), 159-171.
- Park, I. S. (1995). *The Study of health promotion lifesty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usan University, Busan.
- Stoll, R. T. (1989). The essence of spirituality. In V. B. Carson(Ed.), *Spiritual Dimension of Nursing Practice* (pp. 4-23). Philadelphia : W. B Saunders.
- Ware, J. (1976). Scale for measuring general health perception, *Health Serv Res*, 11, 396-415.

Spirituality of Student Nurses*

Lee, Myung-Hwa¹⁾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evel of spirituality in student nurses and to provide baseline data to develop a spirituality development education program.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499 students in departments of nursing in 5 universities in Busan. The data were collected between June 7 and July 18, 2002. The instrument was used Howden's spirituality assessment scal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SD, t-test F-test, Scheffe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SPSS program was used. **Results:** 1) The mean score for spirituality was 101.14±8.70 (range 26 ~ 130). 2) The mean score for perceived health state was 3.42±0.80. 3) Spiritua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for sex, religion, practice experience, smoking, drinking, and climate of home. 4) Spirituality according to religious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for influence of religion, necessity of religion, help from religion, subjectivity of God in life, reading religious books, participation in religion ceremonies. 5)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health state and spirituality. **Conclusion:** The spirituality of the student nurses was high and differed according to sex, religion, practice experience, smoking, drinking, and climate of home, religious characteristics, spirituality, and perceived health status.

Key words : Spirituality, Student nurse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in 2002 research symposium of Research Institute of Wholistic Nursing Science, Kosin University.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Myung-Hwa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34, Annam-dong, Seo- Gu, Busan 602-703, Korea

Tel: +82-51-990-6450 Fax: +82-51-990-3031 E-mail: myunghwa@kosin.ac.kr